

제5장 사천교육의 과제와 전망

제1절 사천교육의 과제

1.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사천교육

‘지역발전 동력을 주도하는 교육역량 강화’를 슬로건으로 지역을 살리는 길은 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사천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희망찬 미래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문명의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사회조직의 메커니즘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기술의 진보는 놀라울 정도이다.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도덕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지향해야 할 학교교육이 너무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만 치우쳐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지 못하였고, 물질 만능주의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하여 비인간적인 행동과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민주의식을 함양시키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세대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을 갖추게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또한, 21C에 도래한 지식기반사회에 대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자율적 사고력 등을 포함한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는 가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인성과 실력을 갖춘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은 모든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21C는 문화전쟁의 시대이기도 하다.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중요하며 교육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 하겠다. 우리 사천 지역은 예로부터 전통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며 현재는 세계 타악 축제가 열리는 세계 타악의 메카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전통문화를 잘 계승·발전시켜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사천교육의 발전 방향

광복 이후 우리 교육은 공교육에 의존하여 왔고 공교육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육재정의 투자 빈곤, 학력의 하향식 평준화, 입시 위주의 암기식으로 끌고 가는 교사들의 일방적인 수업 등의 이유로 인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공교육이 현재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교육의 부실이 학교교육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천교육은 이러한 공교육의 불신을 바르고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육,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교육의 증가로 공교육의 위상이 저하된 시대적 상황에서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과 바른 품성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틀을 확고히 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에게 교육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기초와 기본학력은 모든 생활의 근간이 되며 이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처음 습득하는 기초지식은 평생을 살아가며 축적하여야 할 많은 지식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입시위주의 획일성, 경쟁구도의 교육을 지양하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본이 되는 실력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올바른 판단과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축적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지역공동체, 교육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가 확립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미래지향의 사천교육

신뢰받는 학교·감동 주는 경남교육 시책을 바탕으로 ‘참된 학업성취의 강화’, ‘바른 인성 및 질서의식 함양’, ‘참여적 학교 경영풍토 조성’, ‘교육행정역량의 혁신’이라는 역점과제를 통하여 당면한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현장중심의 교육혁신으로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혁신 시스템으로 창조적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학활동 중점을 ‘발표능력의 신장’, ‘문화예술의 체험’, ‘기초체력의 향상’, ‘칭찬 및 봉사하기’로 정하여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문화예술 체험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특색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추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 강화, 종합학예발표회를 통한 문화체험 등을 강조하며, 1080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체육영재를 육성하며, 칭찬과 봉사의 풍토를 조성하여 서로 칭찬하는 따뜻한 사회로의 확산을 위해 1교 1복지시설 결연, 배려3운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참된 학업 성취의 강화

농어촌에서 점차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지역은 인근 도시지역과 교육여건을 비교해 볼 때 기초와 기본 학력의 저하가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력은 학생이 학습을 수행하는데 기초가 됨은 물론 사회생활의 영위와 자아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의 학력향상은 매우 중요한 사명임과 동시에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다지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기초와 기본학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초와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개선, U-learning을 지향하는 학습활동전개, 통합교육확대의 지속적 추진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내실화로 해당학년, 해당교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를 성취하여 기초와 기본학력이 튼튼한 자기주도적 소양을 갖춘 학습자를 기르며 스스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기와 능력에 따른 개인차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기초학습부진아 Zero’정책의 해인만큼 학생 중심의 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등으로 모든 학생이 기초와 기본학력이 정착되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좋은수업도움체제의 활성화와 새미교수학습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공교육의 내실화

에 주력해야 하며, 또 인근학교간의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정보와 교육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질 높은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나. 바른 인성 및 질서 의식의 함양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조화로운 인격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일 것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육성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으로 도덕성이 상실되고 사교육의 득세로 공교육의 위상이 저하된 시대적 상황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틀을 확고히 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사천교육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써 가져야 할 자질을 함양하며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생활속에서 사람됨교육을 실천해 가도록 하고자 한다. 조화로운 인성을 바탕으로 인간답고 지혜로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친구사랑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기본생활 습관 형성, 사랑의 눈높이 생활지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실천과 민주시민 질서 의식의 내면화로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생활지도로 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학생 자치활동의 내실화와 고장과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애향심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족통일 교육은 물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다. 참여적 학교 경영 풍토 조성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를 주축으로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의 협조체제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준 높은 학교문화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주체는 물론 지역민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기회 확대와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장학활동 방법을 개선하여 교내 자율장학, 교직원의 연수기회 확대와 연수방법의 개선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직원으로 하여금 품위유지 및 사도 실천에 앞장서게 하며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자라날 자녀들의 장래를 먼저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수준별 보충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력을 길러주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을 학교에만 일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과 최선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교육행정 역량의 혁신

교육혁신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기존의 교육활동 상태를 바꾸어 보다 바람직한 새로운 교육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체의 강조는 교육공동체가 교육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신뢰와 협조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력이 강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선결과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되도록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친화적이며 선진화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으로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구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확대에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즐겁게 일하는 교직원 문화풍토를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혁신시스템으로 창조적 혁신을 강화하여 복지행정을 실시해 나가야 하겠다.

4. 사천교육의 발전 과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우리 사천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을 가진 아름다운 고장이며, 임진왜란 당시 처음으로 거북선을 실전에 사용하여 적선 12척을 무찌른 사천 앞바다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진사공업단지에 국내외 업체들의 유치 성공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바뀌었고, 2003년 창선·삼천포 대교와 2006년 사천대교가 잇따라 개통됨으로써 섬지역과 낙후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이다.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대교’는 건설교통부가 국내 도로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었다.

사천지역은 청정해역과 갯벌이 발달하였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수산물이 풍부하고 삼천포연안의 회가 맛있기로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삼천포 전어축제’, ‘마도 갈방아 소리’ 등 수산물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고, 항공우주산업이 발달하여 ‘항공우주엑스포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다. 그리고 박재삼, 최종실 등의 많은 문화인을 배출한 곳이고 진주·삼천포 12차 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11호, 가산오광대는 73호로 지정되어 옛 선조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해마다 사천 세계타악축제가 삼천포 대교 일원에서 열려 세계 타악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남면 일대에는 신항 산업단지인 진사공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한국항공, BAT 등 많은 산업시설과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앞으로 사천교육은 이러한 지역특색을 잘 살려 향토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하겠다. 이에 사천교육은 21C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기초와 기본학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길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동료의식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사천교육의 전망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2030 한국 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을 전망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년 내에 유·초·중·고생의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이며,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 사회는 IT혁명의 지속으로 국가 개념이 희석되면서 다민족, 다문화 국가사회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 출신들의 폐쇄적, 독과점적인 학벌주의는 사라지고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진단하였다.

그와 더불어 사회는 더 이상 학교의 느린 변화를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대한 비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와 같은 공간 개념이 무너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접목된 교육 기관이 출현하여 외국 학교의 선택이 일반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외국학교, 외국 대학들의 사이버를 통한 국내 진출이 일반화되어 학교의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으로 진단하였다.

우리의 미래 사회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래 사회는 국가 개념의 희석과 함께 다양한 문화 교육적 환경이 통합되는 지구촌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지향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교육의 지향점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덕목으로 가야 할 것이다.

2020년은 결코 먼 미래가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동력을 주도하는 사천교육도 이러한 미래교육의 모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내용 측면

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천교육은 첨단 우주항공도시, 해양문화도시라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어우러져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풍토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학습자 중심,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전개를 통하여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다양화와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신장되고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책무성 증대로 기초와 기본학력을 기르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 시키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이며 공교육 활성화와 신뢰 확보의 지름길이다. 교

사는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함으로써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어 기초·기본학력이 정착되고, 다양한 연구와 연찬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교육과 학생의 자아실현을 돕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고 다양화되며,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의 확대 설치 및 기능 확대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평생학습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기술과 정보가치 판단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정보생산 능력의 신장을 위해 과학교육과 정보화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며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도록 할 것이다.

나. 바람직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근본이며 학생이 조화로운 인성을 바탕으로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인간답고 지혜로운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사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성, 체험활동을 통해 인간 존중 사상의 바탕 위에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며, 매사에 의연한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이 알고 느끼며 다짐하여 꾸준히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올바른 삶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질서와 습관을 체득하게 하고, 민족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게 하여 올바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올바른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을 지닌 사람을 기르도록 할 것이다.

다. 공교육의 내실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학교교육과 교육시설의 현대화,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자율과 책임의 교육행정 구현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될 것이며, 지식기반사회·평생학습사회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교원의 부단한 연구와 연찬으로 교원 스스로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2. 교육행정 및 시설 측면

가. 투명한 교육행정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동체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즐겁게 일하는 교직원 문화풍토를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물론, 자율과 책무성을 제고하여 교육력이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으로 복지행정을 실시해나갈 것이다. 소외계층에게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들은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투명하고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할 것이다.

‘사천교육혁신 3·3·3운동’은 3Action(안하려고 하는 것은 하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없다고 하는 것은 있게), 3Clean(학교 창고관리 개선, 아름다운 화장실, 실외 체육·놀이기구 정비), 3Best(교육청 및 학교평가, 교육홍보활동, 교육경비유치)운동으로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혁신과제를 실천에 옮기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천교육의 체질을 혁신하자는 교육혁신 활동이다. 지속적인 ‘사천교육혁신 3·3·3운동’을 통해 사천교육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교육 환경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학교의 신·증설, 학생활동 위주의 다양한 수업 공간 및 제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의 확충, 교원의 편의 시설 설치와 실내 환경 개선 등 선진 교육환경의 조성을 통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다양화가 촉진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직접 참여하여 학교내 유휴공간에 휴식공간 및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 자연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환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 가치관형성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정보를 활용, 공유, 창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CT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수업의 질 향상은 물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학교도서관을 인쇄매체 자료뿐 아니라 각종 첨단매체 자료까지도 검색·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디지털화·멀티미디어화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3.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가. 학교단위 책임경영 강화

교육공동체는 교육정책 및 교육효과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당면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며,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강조되는 시대에는 교육공동체가 교육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와 협조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지역학교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 영어마을 건립, 지역교육 발전기금 투자 확대 등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교육력이 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교원전문성 신장 및 인적자원개발 기반 확립

공정한 인사행정 시행,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교권옹호 활동 전개, 집단 간의 갈등 해소, 대화하는 풍토 전개, 교직존중 과제 선정 추진, 교원 사기 진작 노력 등을 통하여 교직 존중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교원 연수의 강화,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 수업개선 지원활동 강화, 현장 연구 활동 활성화 지원, 교원 연구실 확충, 장학활동 방법 개선, ICT활용 능력 신장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될 것이다.

더불어 각종 경시대회 기회 제공, 평생교육 기회 부여, 진로교육 활성화, 실업교육 강화, 특수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 강화, 농어촌 학교 지원 강화,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내실화 등을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립될 것이다.

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복지 구현

지방 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에 있어서 자율성, 민주성, 그리고 전문성의 존중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아졌다.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자율화 시대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교직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은 이제 그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지원 장학단 운영, 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 정착, 학교 교육과정 평가, 좋은 수업 도움체제 구축 및 협동학교 운영, 교육과정의 지역화 등을 통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기함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학생 복지 향상 추진,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걱정 없는 교단 만들기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교육 복지가 구현될 것이며, 질서가 확립되고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꾸어 향토 사천교육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